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4호 2020년 12월 28일(월)/계간

발행인 · 김두년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Campus News

02 후기 학위수여식, 학사 · 석사 · 박사 97명 졸업
02 조벽 교수 초청 특강 가져
02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석좌교수로 임용
02 조동욱 교수, 발전기금 300만원 기탁
02 핵심역량 재설정 교육과정 전면 개편
03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위한 학생평가단 구성
03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로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 대응
03 취창업지원센터, 봉사활동과 함께 창업역량강화 캠프 진행
03 승마교육원 괴산군 학생 승마체험 운영
04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 스마트 교수법' 워크숍 개최
04 생체의공학과, 제10회 졸업작품 전시회 열어
04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공서비스 ICT 트랙 '드론 교육 캠프' 열어
04 산학협력 협약식(MOU)

Students News

05 박지환 · 서준서,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 선발 영예
05 졸업생 홍석모씨 '초저유전체 개발' 네이처지 1저자 게재
05 제49회 회장배 펜싱선수권대회 에페 단체전 3위
05 항공운항학과, 7회 견장 수여식 가져
05 2020학년도 운동부 착복식 가져
06 2020 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06 연극영화학과, 1회 동대문 영상 단편영화제 금상 수상
06 연극영화학과, 8회 예당국제대학 연극제 4관왕 수상
06 항공서비스학과, 승무원 체험 비행 실습 실시

Social News

07 외국인 유학생 박물관 추억만들기 행사 참가
07 축구부, 재능기부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개최
07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김장체험 가져
07 연극영화학과, 괴산김장축제 개막공연 참여
08 사회봉사단, 독거노인 2가구에 연탄 1천장 전달
08 사회봉사단, 국립 괴산호국원에서 묘역 정비 봉사
08 충북창업보육센터 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 · 센터장 워크숍
08 우리 대학 박물관, 찾아가는 진로 체험 운영
08 중한혁신대회 창업공동체 발대식 온라인 참가

COVID-19 Communication News

09 김두년 총장, 취임 1주년 맞아 '총장과의 대화'
09 방역물품 전하며 '등교생 환영' 이벤트진행
09 코로나19 극복 '푸드트럭 DAY' 행사 실시
09 간식나눔 소통 이벤트 '총장님이 떴다!'
09 '코로나 극복 특별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35만9000원

JWU in 人

10 11 중원대학교 스포츠단을 소개합니다!
12 jungwon's got talent

Life in JWU

13 생활관 상점 얻고! 벌점 조심하자!
14 중원대학교의 자랑

Career

15 중원인들의 인생책!
16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속 모습은?

Our story

17 16학번이 들려주는 라떼는 말이야
18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19 새내기 병아리들의 기숙사 원칙은 나야 나

2021년 신입생 정시모집

후기 학위수여식, 학사·석사·박사 97명 졸업



▲후기 학위수여식 관련 수상자들이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사 80명, 석사 13명, 박사 4명 등 97명을 배출했다고 8월 21일 밝혔다.

우리 대학은 이날 학위수여식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희망자만 참석한 가운데 교내 E-홀에서 희망자들과 간소하게 치렀다. 학위수여식 취소로 졸업준비위원회는 학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했다. 학교에 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졸업장과 상장 등을 자택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두년 총장은 "졸업한 학생들에게 축하한다"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해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대학이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개교한 중원대는 2013년 첫 졸업생 89명(학사)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학사 3546명, 석사 145명, 박사 39명 등 3730명이 학위를 받았다. 〈편집부〉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석좌교수로 임용



▲임용 뒤 경찰행정학과 특강 진행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63)이 우리 대학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지난 9월 2일 우리 대학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돼 지난 1일 오후에 임용장을 받았다. 이 석좌교수는 이날 "그동안의 경험과 법 지식을 미래 경찰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롤 모델로서의 역할과 멘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석좌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제6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편집부〉

조동욱 교수, 발전기금 300만원 기탁


▲기탁자인 조동욱 부부가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립대학교 조동욱 교수가 우리 대학에 학교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30일 본교에 따르면 조 교수는 29일 우리 대학을 방문해 의료공학과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의료공학과는 조 교수의 아들인 일영씨가 재학 중이다. 이들 부자는 최근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 교수는 "제가 전공한 학문(생체신호분석)을 아들이 이어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중원대에 감사하다"며 "작은 마음이라도 꼭 학교와 학과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두년 총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 교수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질병 관련 분야와 사회적 이슈 관련 음성 분석을 통한 다수의 논문을 내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편집부〉

조벽 교수 초청 특강 가져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교육법 강의



▲조벽 교수가 대강당에서 교수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9일 대강당에서 열린 '2020학년도 제1차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수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벽 석좌교수(고려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이날 참석한 150여 명의 교직원에게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교육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핵심 내용은 △지식 중간도매상에서 벗어나라 △단순히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라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라 △교과과정이 아닌 '교육 경험'을 디자인하라 △첨단 교수법을 구사하라 △'교수법 기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학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가르쳐라 등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학생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살피고 공감(共感)과 경청(敬聽)을 꾸준히 해 진정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학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가르쳐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핵심역량 재설정 교육과정 전면 개편

핵심역량, '창의융합·소통·인성'으로 재설정
새 교육과정 2021학년도부터 적용

우리 대학(총장 김두년)은 미래를 이끌 진취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대학 핵심역량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핵심역량을 고려한 학과별 전공 능력 및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준비된 교육과정은 대학의 제 규정에 따라 일련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대학 구성원과 대내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2021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조적 전문인', '진취적 개방인', '실천적 봉사인' 양성을 인재상으로 정립하고, 3대 핵심역량을 설정해 교육 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후 2019년 개교 10년을 맞이해 시대와 산업의 변화에 발맞추어 확산과 도약을 위한 3주기 중장기발전계획(Over the TEN)을 수립하면서 핵심역량과 하부역량의 일부 재설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고등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및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미래교육과 역량)의 개념을 기반으로 교내 정책연구, 학생만족도 조사·분석, 지역 및 산업체 요구도 분석 등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대학의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역량을 △창의융합역량(Creativity Convergence) △소통역량(Communication) △인성역량(Character)의 3대 핵심역량으로 재설정했다.

우리 대학 김두년 총장은 "사회와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대학의 핵심역량과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창조적 전문인, 진취적 개방인, 실천적 봉사인)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새로운 핵심역량의 설정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핵심역량 성취도에 대한 진단과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 핵심역량 진단 도구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2021학년도에는 자체 개발한 JWU-CCA(Core Competencies Assessment)를 기반으로 매년 1차례 이상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편집부〉

우리 대학, 교육과정 편성 · 운영 위한 학생평가단 구성


▲우리 학교 정문 사진.

우리 대학 교육 개발성과관리센터(센터장 황희정)는 최근 교육과정(교양, 비교과) 편성과 운영에 교육수요자 중심의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교양과목과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교육과정 학생평가단을 도입했다.

이번 제1기 교육과정(교양, 비교과) 학생평가단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 14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면 자체 수립한 활동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설문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오는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중원대학의 인재상에 따른 핵심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단은 △재학생 만족도 분석과 실태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 파악 △사회적 요구와 최신 경향에 적합한 교육과정 탐색 △재학생 선호도 조사와 각종 요구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개설 제안 △교육과정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등 우리 대학이 운영할 교양,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을 조사한다.

이들은 교육과정(교양, 비교과) 개발과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 학교와 학생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대학 사례조사와 토론을 통해 최신 교육 트렌드를 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한 교양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우리 대학은 이들이 오는 12월까지 활동을 마무리한 후 제출하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각 학과와 부서 간 공유하고 최종 보고서 내용을 다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희정 센터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1기 교육과정 학생평가단의 활동은 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실현하고자 도입됐다"며 "이들의 적극적인 교육수요자의 요구 분석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중원대학의 인재상을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로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 대응

우리 대학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미디어 소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신설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언택트 미디어 소통 교육, 언택트 미디어 운영 컨설팅, 언택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언택트 미디어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하며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활동 환경 마련과 교육적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센터의 운영을 통해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교직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 및 원격수업 우수사례 전파 ▲다양한 학문 영역의 주요 교과목의 원격수업 제공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고 수업의 질 향상에 기여 ▲타 대학 제작 영상 및 타 플랫폼 탑재 영상 등 외부콘텐츠 활용의 확대를 통하여 본교 교수들의 교수법 향상의 동기부여 및 교수법 개선의 기회 부여 등 쌍방향 실시간/비실시간 서비스로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해 참여하는 사이버학습과 소통하는 스마트교육을 통해 참여형 교육 서비스 허브를 구축하여 공감하는 미래 교육기반을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 우리 학교 산업협력단 바깥 전경 사진.

김두년 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출범을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가올 미래 교육환경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개별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취창업지원센터, 봉사활동과 함께 창업역량강화 캠프 진행



▲창업역량강화 캠프를 마치고 괴산군 자연드림파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취창업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한 창업역량강화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40여 명의 재학생과 최상범 교수 및 취창업지원센터 직원, 중원어벤져스(괴산군 봉사단체) 등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사과 수확기 일손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사과농과를 방문하여 농가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사과 낙과를 활용한 지역연계형 창업사업 구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괴산군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하여 시설소개 및 탐방, 한국경제신문 관계자 초청 창업 교육,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순으로 캠프 프로그램을 마쳤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프로그램은 봉사활동과 함께 진행된 캠프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사회 전반에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창희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및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의미있는 창업역량강화 캠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승마교육원 괴산군 학생 승마체험 운영


▲실내승마장에 수강생이 말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우리 대학 승마교육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1차 교육 일정으로 괴산군 사창리에 위치한 승마교육원에서 군내 감물초 7명 학생을 시작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기초승마체험 교육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 대학 승마체험은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괴산군에서 '2020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일반 승마체험 220명과 사회 공익 승마체험 26명으로 1인당 10회에 걸쳐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이론 수업 말과 교감하기 승마체험 등을 받게 된다.

체험활동비용은 일반 학생 기준 10회 32만 원의 약 30%인 9만6,000원을 자부담해야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부담 없이 승마를 배울 수 있다. 전신운동인 승마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 존중 자연 사랑의 인성 함양과 말산업 진로교육 기회 제공 및 자신감, 집중력, 판단력,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균형감각을 키울 수 있고 말과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주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최상범 승마교육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쳐있을 학생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교육 스마트 교수법' 워크숍 개최



▲교수들이 전산 실습실에서 원격교육 스마트 교수법 강의를 듣고 있다.

우리 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는 18일 본교 전산 실습실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스마트 교수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워크숍은 효과적인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동영상 활용 수업을 통해 교수 수업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본교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도와 수업과 교육의 질 개선 및 학습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비대면 수업 운영전략 개발 ▲동영상 콘텐츠 활용 프레젠테이션 ▲플립러닝을 위한 강의 동영상 만들기 등으로 이상훈 강사(쿨디자인 대표)가 특강을 진행했다.

연수는 회차별 주제의 선정 시 교육환경변화와 교원의 요구를 반영해 더 실질적인 교수법 능력 향상을 도모했으며, 강사 역시 주제와 관련한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섭외해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제공했다. 한상훈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원격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영상 활용 수업 등 실습 중심의 내용구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원격 수업의 실제 사례들과 효과적인 교수법 강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에서 원격 강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요구되는 점을 인지하고, 원격 강의 운영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제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여 참여한 교원들로부터 '강의 녹화 등 영상을 활용한 원격 강의에 크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심화 과정을 기대하며 재밌고 유익한 연수였다'라는 의견을 얻었다. 〈편집부〉

우리 대학, 생체의공학과 제10회 졸업작품 전시회 열어



▲생체의고학과 졸업작품 전시회 출입구 전경

우리 대학 생체의공학과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대학 본관 1층 로비에서 2020학년도 제10회 졸업작품 전시회를 했다.

생체의공학과 학생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뤄 프로젝트 중심의 작품 10개를 선보였다.

작품은 △수지 접합 재활 의료기기 △시각장애인 자율주행 지팡이 △휴대용 기침 유발기 △팰티어 소자를 이용한 손목 냉온 찜질기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어 휠 △공기압을 이용한 허리 보조기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 △손 떨림 방지 컵홀더 △안면 근육을 이용한 근전도 리모컨 △심폐소생술 장갑 등이다.

각 출품작은 학과의 특성을 살린 작품으로 학과 교수진이 1년간의 프로젝트 실습의 효과성, 창작성, 현장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평가했다. 그 결과 전시회 방문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생체의공학과 배태수 학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라며 "학생들이 이번 경험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대학 생체의공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의료기관(종합병원, 한방병원, 재활병원, 일반 병의원), 보건직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보건 관련 연구소, 의료·메카트로닉스 관련 연구기관, 대기업·전문 의료기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체의공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학과명을 의료공학과로 변경한다. 내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편집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공서비스 ICT 트랙 '드론 교육 캠프' 열어



▲드론 교육 캠프에 참여한 학생 및 교수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총장 김두년)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중원대 실습실 및 드론비행 훈련 실습장에서 2020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공공서비스 ICT 트랙 프로그램으로 '드론 교육 캠프'를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기전자공학전공,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재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산업인 드론산업의 지역인재 양성 및 드론 운용기술과 태양광 ICT 산업 간 융합기술로 충북지역 특화산업(태양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됐다.

우리 대학 전기전자공학전공 이홍찬 교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드론의 작동원리와 프로그래밍기초를 학습하고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드론의 개발에 참여할 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역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계가 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요맞춤형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및 발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편집부〉

산학협력 협약식(MOU)

Jungwon university ceremony



▲ ㈜서원양행, 산학협력 MOU 체결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13일 대학본부에서 (주)서원양행과 우수한 기술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신성미네랄, 산학협력 MOU 체결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6일 대학본부에서 관내 강소기업인 (주)신성미네랄(대표이사 차태형)과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술 인력의 양성 · 확보 및 기업발전에 공동노력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학협력단 – 지니스㈜, 산학협력 MOU체결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8일 대학 교무회의실에서 지니스(주)(대표이사 김상도)와 기술 인력의 양성 · 확보 및 기업발전에 공동노력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지환·서준서,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 선발 영예



스포츠지도학과 20학번 박지환



스포츠지도학과 20학번 서준서

우리 대학 카누부 소속 박지환(스포츠지도 전공 1), 서준서(스포츠지도 전공 1) 선수가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영예를 얻었다.

박지환, 서준서 선수는 포항이동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선수 생활을 시작해 2020년 우리대학 스포츠지도 전공에 입학하여 훈련에 매진해오던 지난 12일 충남 부여군 백마강 카누경기장에서 열린 '2020년도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종 선발됐다.

박지환 선수는 "우리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며 비인기종목인 카누가 인기종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 도쿄 올림픽의 출전권을 반드시 획득하여 카누 슬라럼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도록 하겠다"며 한국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또한 서준서 선수는 "우선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과 동생, 코치님께 제일 감사드린다"며 "이제 한국 카누 슬라럼 국가대표로서, 또한 우리 대학 선수로서 다가올 도쿄 올림픽 출전을 대비하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둬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

유현승(카누부 감독) 교수는 "우리 대학 카누부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제 49회 회장배 펜싱선수권대회 에페 단체전 3위



▲제 49회 회장배 펜싱선수권대회에서 3위 수상 한 펜싱부 우승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 대학 펜싱부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전남 해남군에서 열린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 대학부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펜싱부는 김정인(스포츠산업전공 2년), 김주은(무예경호전공 1년), 조아영(스포츠산업전공 2년)이 팀을 이룬 창단 8개월 된 신생팀이다. 이 팀은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정인 학생은 "우리 대학에서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수상해 기쁘다"며 "우리 대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주은 학생은 "코로나로 많은 시합이 취소됐지만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연습해 실력을 향상시킨 덕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력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년 총장은 "펜싱부 학생들이 첫 출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 매우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기량과 인성을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송은일 감독과 충북 펜싱협회의 든든한 지원으로 강팀의 위상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대학 펜싱부는 송은일(무예경호학과장) 감독이 팀 창단의 산파 역할을 하고, 유진국 충북펜싱협회 전무이사와 김두년 중원대 총장과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편집부〉

졸업생 홍석모씨 '초저유전체 개발' 네이처지 1저자 게재



신소재공학과 10학번 홍석모

우리 대학 신소재공학과 졸업생인 홍석모씨(울산과학기술연구원·UNIST 박사과정)가 반도체 집적회로에 사용하는 '초저유전체'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대학에 따르면 홍씨는 UNIST 자연과학부 신현석 교수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포함한 연구진에 포함돼 '초저유전체'를 개발했고, 그 논문이 1저자로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한국연구재단과 기초과학연구원(IBS), 삼성전자 지원으로 연구한 내용은 반도체 소자 안의 전극이 가까워질수록 내부 전기 간섭 현상이 심해지고 신호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유전체 개발로 의미가 있다. 전기 간섭을 최소화한 낮은 유전율의 신소재 개발은 반도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홍씨는 "낮은 온도에서 육방정계 질화붕소가 기판에 증착되는지 연구하던 중 '비정질 질화붕소'를 발견했고, 반도체 절연체로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유전율이 낮은 절연체를 이용하면 반도체 칩의 전력 소모를 줄이고 작동 속도는 높이는 미래 반도체의 소재로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항공운항학과, 7회 견장 수여식 가져



▲견장 수여 후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항공운항학과(학과장 송재두)는 26일 학교 PT룸에서 '제7회 견장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년 총장을 비롯한 이연숙 항공대학장, 송재두 항공운항학과장 및 학과 교수들과 재학생이 참석해 예비 조종사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30여 명의 항공운항학과 신입생들은 이번 견장수여식을 통해 학생들이 비행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직 조종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두년 총장은 격려사에서 "견장수여식은 조종사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며, 또한 책임과 다짐의 자리이다"라며 "앞으로 훌륭한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누비는 그날까지 스스로에게 약속한 생생한 다짐과 초심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견장을 수여 받은 구도현(항공운항학과 20학번)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늦은 견장수여식을 가졌지만, 제복을 입고 견장을 다는 순간부터 책임감이 느껴지면 일원으로서의 뭉클함을 느꼈다"며 "앞으로 교수님과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워 어깨에 짊어진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는 조종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 항공운항학과의 견장 수여는 견장에 새겨지는 줄이 늘어남에 따라 책임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로 2014년도 항공대학 신설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편집부〉

2020학년도 운동부 착복식 가져

우리 대학(총장 김두년)는 18일 학내 CEO룸에서 '2020학년도 운동부 착복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훈련 및 대회 취소로 인해 지친 운동부 학생들을 위로하고, 소속감 및 종목별 학생 선수로서의 자존감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우리대학 운동부는 축구부, 씨름부, 골프부, 태권도부, 승마부, 카누부, 펜싱부 등 7개 종목을 운영 중이다.

착복식에 앞서 종목별 대표 학생들은 김두년 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과 선수들 간의 소통으로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착복식에는 김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교수와 종목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동부 소속 학생 100여 명을 격려했다.

김 총장은 "학생 선수들이 부상 없이 늘 최선을 다해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충북과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를 밝혀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운동부 착복식 후 총장 및 운동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 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 후 수상자들이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이창희)와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최상범)는 지난 9일 대학 본관 CEO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학생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28개 팀 총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정지역 괴산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창업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예비창업자들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창업 아이템 ▷사업계획 ▷창업 의지 ▷PT 발표 능력 등으로 최종 우수 창업 아이템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상식에는 최종 선정된 10개 팀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대상에는 '마닐마닐' 팀(식품공학과 진희언, 유병훈, 정서호, 이미정, 김은정, 이지은)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식용 귀뚜라미와 고령친화식품을 혼합해 노인(환자)들이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고령 친화형 스틱 타입 젤리'를 내놓아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최우수상에는 ▷'JW인더스트리' 팀(경영학과 이상, 김정현, 윤소정, 김선영)의 '괴산 지역상권 포인트제 및 관광지 연계 앱', ▷'비교과 탐방' 팀(컴퓨터공학과 황건희)의 '비교과 앱-비교과 신청을 편하고, 이수 현황을 간편히 알 수 있는 앱'이 뽑혔다. 이어 우수상에는 ▷'스타트업' 팀(식품공학과 임범수, 김유겸, 박권, 장한슬)의 '요거트 디저트 카페'와 ▷'팜디자인' 팀(융합디자인학과 최운영)의 '농산물 브랜드 디자인 제작'이 각각 차지했다.

최상범 중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겸비한 학생들을 육성하여 실질적인 창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1회 동대문 영상 단편영화제 금상 수상



▲수상자인 유소열 학생과 김두년 총장, 이태규 학과장 및 관계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 4학년을 주축으로 구성된 유소열씨(연극연화학과 4년)가 연출한 '대리운전'이 1회 동대문 영상 단편영화제에서 금상(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영화제는 전통문화의 상징인 서울 동대문구의 전통을 이어받아 올바르게 성장하는 청소년, 청년, 일반인들의 꿈과 건강한 사고에 기여하고 영화 동호인들에게 소통과 별표와 격려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동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영화제이다.

1회 동대문 영상 단편영화제는 지난달 11월 21일 동대문 일대에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상영과 온라인 시상식을 진행했다. 유소열 연출 '대리운전'은 실제 연출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대체 군 복무 중 유치원에서 본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리운전은 누군가의 운전을 대신할 순 있지만, 아빠의 자리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애틋함을 다룬 가슴이 따뜻해지는 작품이다. 또한 대리운전은 지난 10월, 연극영화학과 6회 졸업영화제에 상영돼 온라인 상영을 이미 마친 작품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유소열씨는 "4년의 학교생활 그 끄트머리에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며 "영화를 제작하는 데 전반적인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교수는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는 개설한 지 이제 9년이 되는 학과로서 충청권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주도해 가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이번 공모전 출전과 수상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가 더욱 활발히 활동해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학과로 정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8회 예당국제대학 연극제 4관왕 수상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는 비대면 영상촬영을 통해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제8회 예당국제대학 연극제에 참가해 4관왕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극제 수상작인 안톤체홉 작 '세자매'는 러시아 대표 희곡작가인 안톤체홉을 대표하는 희곡으로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2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학을 제외한 국내 대학 중 중원대학교, 국제대학교, 동양대학교, 청운대학교, 호산대학교 등 총 5개의 대학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펼쳤다.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는 단체상으로 은상(예당국제공연예술제 집행위원장상), 마샤역의 김수현(19학번 2학년)학생이 우수연기상((사)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상), 박기정(19학번 2학년)학생이 무대미술상 (예당국제공연예술제집행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지도교수상 (국회의원상)으로는 한정수 교수가 수상하는 등 총 4관왕을 차지하며, 충청권 연극영화학과의 명실상부함을 증명했다.

지도교수상(국회의원상)을 수상한 한정수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객들과 직접 대면하여 공연을 올리지 못해 아쉽다"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른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지역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등 많은 공연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태규 학과장은 "이제 곧 10주년을 앞둔 연극영화학과는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주도해 가는



▲예당국제대학 수상자들과 김두년 총장, 이태규 학과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며 "이번 연극제를 발판으로 삼고, 연극영화학과 교수진 및 재학생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하여 전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학과로 정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리는 예당국제공연 예술제는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으며, 전국뿐만 아니라 국제행사로 확대된 연극제이다. 2018년부터 부대행사로 예당전국대학 연극제를 경연형식으로 도입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예당대학연극제를 세계로 확장하여 예당국제대학 연극제로 성장한 세계적인 축제이다. 〈편집부〉

항공서비스학과

승무원 체험 비행 실습 실시



▲에어 부산 캐빈승무원 체험 비행 프로그램 참여 후 공항에서 학과장 및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 박찬규)는 재학생 68명이 '에어부산 캐빈승무원 체험 비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습 비행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늘에 담은 나의 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에어부산에서 이어가고 있는 승무원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제 항공기에 탑승해 합동브리핑, 탑승권 확인, 기내방송, 유상판매 등 캐빈승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직업 이해도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습 비행은 실제 이륙한 항공기(BX8910편)에서 약 2시간여 동안 다양한 서비스와 안전 업무에 대한 실습이 이뤄져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가은(항공 서비스학과 2학년) 학생은 "이번 체험을 마련해 주신 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과 실습을 도와주신 현직 승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하며 승무원의 꿈에 좀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박찬규 항공 서비스학과장은 "재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지식 및 현장 실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사 전문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외국인 유학생 박물관 추억만들기 행사 참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석 팔찌 체험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원장 전춘련)은 6일 외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으로 교내 박물관에서 열린 '박물관 추억만들기' 문화체험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하계방학 기간 본국으로 가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로하고, 유학 생활의 특별한 추억을 갖기 위해 진행됐다.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박물관 유적 둘러보기 △원석 팔찌체험 △7080 뽑기게임 등을 체험하며, 한국 유학 생활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문화 다양성 공감대 확산 면에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체험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은 "코로나19로 고향에 가지는 못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라며 "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체험으로 지친 유학 생활의 스트레스 해소와 고향에 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춘련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한국 생활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다지며 경험의 폭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한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좋은 반응을 보여 앞으로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현재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32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졸업 후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국제교류 도우미, 한국문화체험, 인턴십, 맞춤형 진로 지원, 멘토 교수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편집부〉

축구부, 재능기부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개최

이세인 감독 등 코칭스텝, 팀 경기 통해 축구에 대한 흥미 유발



▲괴산 송면 중학교 운동장에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우리 대학(총장 김두년) 축구부(감독 이세인)가 지난달 27일, 학교체육지역협의체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은 체육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스포츠클럽 동아리 등 학교교육활동과 연계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축구부 이세인 감독 및 코칭스텝 3명이 괴산 송면중학교를 방문해 이뤄졌다.

축구부는 이날 중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축구 기본기를 다지고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팀 경기 등 다양한 활동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팀 경기를 통해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축구에 흥미를 보였다.

이세인 감독은 "축구를 통해 학생들이 집중하는 모습과 열의를 갖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재능 기부 활동을 제공해주신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학교체육지역협의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축구부는 오는 10일에도 괴산 연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을 진행한다.

〈편집부〉

국제교류원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김장체험 가져



▲외국인 유학생들이 김장 체험 후 총장, 군수와 함께 기념촬영 중이다.

우리 대학 국제교류원은 6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해로 두 번째 축제를 맞은 괴산김장축제 행사 중 글로벌 김장체험 행사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에는 김두년 중원대 총장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 20여 명이 참여해 행사 주최 측에서 설명하는 김장의 유래 방식 설명을 듣고 한국 음식의 우수성과 만들어지는 방식을 습득하면서 한국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김장 체험은 총 3일간 순차적으로 외국인, 어린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최 측은 이러한 행사를 한 배경으로 '누구나 쉽게 김장을 할 수 있고, 김치는 어려운 음식이라는 편견을 벗어 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투완 학생은 "한국에 와서 김치를 자주 먹어봤는데 직접 만들어보니 매우 신기하고 재미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전춘련 국제교류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괴산김장축제는 우리 지역의 행사로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한국 문화 체험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 괴산김장축제 주최 측인 괴산군에서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게 괴산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으며 다양한 행사와 볼거리가 있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괴산김장축제 개막공연 참여





▲김장축제 공연사진 및 기념촬영 사진이다.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학과장 이태규)는 2020 괴산김장축제의 개막식에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졸업생들이 창단한 지역의 젊은 극단 '신박한(대표 김형우)'과 함께 개막공연을 선보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축제의 부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세기의 대결 배추 vs 고추'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9월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된 한정수 교수가 총연출을 맡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괴산의 특산물인 절인 배추와 고추를 소재로 해 춤과 노래를 결합시킨 단막극 퍼포먼스로 지역특산품을 선전하고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끌어낸 성공적인 공연으로 평가됐다.

총 연출을 맡은 한정수 교수는 다년간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 전문가로서, 이벤트와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 및 무대예술 전 분야의 기획, 제작, 연출 전문가로서 알려져 있다.

한정수 교수는 "지역의 큰 행사를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매우 뜻 깊다"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의 졸업생이 주축이 되어 지역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극단 '신박한' 대표 김형우 씨는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의 대학원에 재학중인 미래 공연예술계의 큰 자원으로서 기획, 제작, 연기 등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재이다.

그는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 재학생들과 동문극단인 '신박한'이 어려운 시기에 뜻을 모아 지역의 큰 행사에 재능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쁜 일이다"라며 "우리 대학 연극영화학과와 극단 '신박한'이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해왔고,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지역과 상생하여 지역 예술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는 기대감을 전했다. 〈편집부〉

사회봉사단, 독거노인 2가구에 연탄 1천장 전달



▲연탄 배달 후 연탄 배달 학생과 총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단장 이지연)은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실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 이어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김두년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 20여명이 참여해 연탄 1천장을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구 2곳을 선정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지연 사회봉사단장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학생들의 작은 힘이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복(항공재료공학과 3년) 학생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는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우리의 작은 정성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지역내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27일에도 2차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부〉

사회봉사단, 국립 괴산호국원에서 묘역 정비 봉사



▲이지연 단장이 학생들과 함께 봉안담 주변 청소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은 충북 괴산군 국립괴산호국원에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2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묘역정비 봉사의 손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괴산호국원을 방문, 현충탑 참배 후 야외 묘역을 정비했다.

이지연 단장은 "오늘의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하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우리대학은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나라 사랑 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은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핵심역량에 따라 홀몸노인 생필품 지원과 헌혈, 농촌일손 봉사, 해외봉사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

충북창업보육센터 협의회, 2020년 정기총회·센터장 워크숍



▲충북창업보육센터 협의회 참석자들이 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최상범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충북창업보육센터 협의회가 지난 12일 '2020년 하반기 정기총회 및 센터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범 충북창업보육센터 협의회장을 비롯한 충북도청 경제통상국 경제 기업과 충북 소재 15개 창업보육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충북창업 페스티벌 기업 부스 참여, 충북창업포럼 주체, 공유BI운영 등 충청북도와 창업 관계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회의했다.

또한 창업보육 사업의 활성화와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충북창업보육센터 협의회는 15개 창업보육센터로 구성됐으며 충청북도, 충북중소벤처기업청, 청주시청 투자유치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창업실, 한국창업 보육협회(KOBIA) 등이 후원한다. 이 협의회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한다. 〈편집부〉

우리 대학 박물관, 찾아가는 진로 체험 운영

우리 대학 박물관이 최근 중원 청소년 문화복지센터와 함께 괴산 오성중과 증평 형석중에서 5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속 학예사 직업체험'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진로 체험을 위해 박물관 학예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박물관 속 직업세계(학예사, 에듀케이터, 컨서베이터, 도슨트 등)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의 교육내용으로 ▲중원대학교 박물관 상설전시 영상 관람 ▲박물관 속 직업 이야기 ▲학예사와의 대화 등의 이론교육과 '나도 아티스트' 도자기 핸드페인팅 공예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우리 대학 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많은 학교가 체험학습을 정상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 탐색 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대학 학예사가 학교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 및 신청 방법은 교육부 꿈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전예약 후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편집부〉

우리 대학, 중한혁신대회 창업공동체 발대식 온라인 참가

우리 대학이 지난 20일 중국 위해시에서 열린 제3회 중한혁신대회 중한대학교혁신창업공동체 발대식에 온라인 참가했다.

중국 산동성 인민정부와 한국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위해시 인민정부와 산동성 과학기술청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중국 시장 진출의 등용문으로 꼽히고 있다.

발대식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해 국내 5개 대학이 참여했고 중국에서는 산동대, 하얼빈공업대, 하얼빈이공대, 북경교통대, 산동교통대가 참가해 공동체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한·중의 대학과 기업 간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인적교류의 플랫폼 구축,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기술 및 산업 동향 정보 공유, 양국 경제 발전 도모 등이 담겼다.



▲중한혁신대회 발대식에 김두년 총장이 온라인을 이용하여 참가하고 있다.

김두년 총장은 "앞으로 양국의 우수 기술교류와 우수기업의 중국 진출 및 학생들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위해시는 중국 물류의 중심지이며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 도시이다. 〈편집부〉

김두년 총장, 취임 1주년 맞아 '총장과의 대화'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비와 의대 설립에 집중할 것"



▲김두년 총장 및 학교 관계자, 학생 대표들이 VIP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학 김두년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9일, 총장실 부속 VIP 회의실에서 학생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두년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처장, 총학생회, 생활관운영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2020학년도 2학기 비대면 수업 운영 및 본교 시설 개선 관련 총학생회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 총장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더불어 학생의 입장에서 숙고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장은 "2029 'OVER THE TEN'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충북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인 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데 남은 임기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취임 후 '신바람 나는 활기찬 대학, 대학다운 대학' 만들기를 선포하고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1년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전담하는 상생 교육혁신원을 비롯, 대학 전반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대학이 처한 현안 문제해결에 주력해 왔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선제대응으로 안전한 캠퍼스를 유지하는 대학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내외의 다양한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며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대학을 대학다운 대학으로 변모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총장은 대학기관인증평가획득, 대학운동부 지원사업, 대학생을 위한 통일강좌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승마교육원 개장, 해외유학생 유치, 교육환경개선, 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선도대학으로 학교 발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편집부〉

방역물품 전하며 '등교생 환영' 이벤트진행



▲김두년 총장이 등교생들에게 방역 물품을 나누어 주고 있다.

우리 대학(총장 김두년)이 제한적 대면 수업 실시 첫날인 10월 19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덴탈 마스크 6천장과 손소독제를 배부하며 '등교생 환영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실시한 우리 대학은 학교에서 준비한 덴탈 마스크와 손소독제,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방역물품 등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방위에 나섰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각 건물마다 출입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손소독 및 바코드를 이용한 발열체크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면 수업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학과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한 좌석 배치 및 가림막 설치 ▶강의실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창문은 수시로 열어서 환기 등과 함께 ▶수업 종료 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기 위해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했다.

김두년 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례없는 사회적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국가적 방역 지원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청정하고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제한적 대면 수업을 허용함에 따라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고 바이러스의 학내 유입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교내 방역 체계 매뉴얼'과 정부의 생활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편집부〉

간식나눔 소통 이벤트 '총장님이 떴다!'

우리 대학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총장이 생활관을 깜짝 방문해 간식나눔 소통 이벤트 '총장님이 떴다!'를 개최했다고 22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교내 오픈 이벤트를 대신해 총장이 직접 생활관을 방문해 중간고사 기간 중의 재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생활관 내에서 공부하는 재학생 1300명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했다.

김두년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중으로 힘든 시기에 시험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라며 "작은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해 시험공부로 지친 학생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옥 학생은 "갑자기 생활관으로 찾아오신 총장님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늦은 시간 간식을 챙겨주며 격려해 주시는 총장님의 배려에 진심이 느껴졌고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김두년 총장이 간식나눔 행사에 앞서 생활관 사생자치위원회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감을 밝혔다. 우리대학 '중원사랑 소통캠페인'은 재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고 학생들과 격식 없는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편집부〉

코로나19 극복 '푸드트럭 DAY' 행사 실시



▲'총장님이 쏜다' 이벤트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오는 5일까지 교내 본관 앞에서 재학생들을 위한 '푸드트럭 DAY'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재학생들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미니게임 이벤트, 이·총·학(이사장, 총장, 학생회)이 쏜다, 해시태그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축제를 대신해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 이벤트로 학생들이 위안을 얻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얻길 소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진관 학생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서로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코로나 극복 특별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35만 9000원

우리 대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학기 수료자 모두에게 납입한 수업료의 8.3%를 지원한다. 1인당 최대 35만9000원을 받는다.

앞서 대학은 지난 11일 총학생회와 간담회에서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학교의 기준과 재정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금 마련을 위해 대학은 올해 예산을 전면 재조정했다. 적립기금, 사업예산 절감, 교직원 성금과 대내외 기부금 등으로 6억여 원의 재원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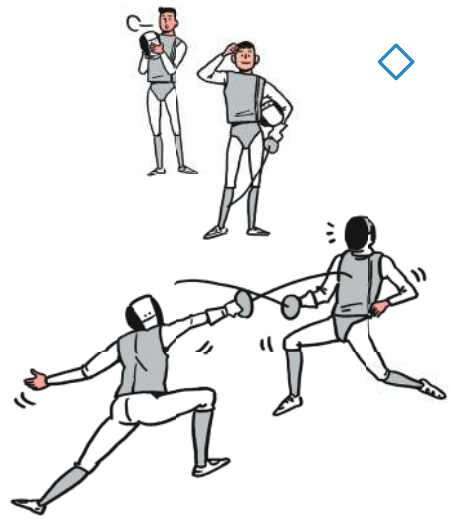
김두년 총장은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서로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면서 "조금씩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뜻과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총장, 학생처장, 총학회장, 총학 부회장이 특별 지원금 확정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원대학교 스포츠단을 소개합니다!





중원대학교 학우분들! 혹시 얼마 전 중원대학교 운동부인 씨름부에서 용장급 3위, 펜싱부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수상한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중원대학교 운동부 중에서 씨름부와 펜싱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원대학교의 운동 엘리트들만 모였다는 스포츠단의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스포츠산업학과 19학번 조아영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원대학교 펜싱부 소속 조아영이라고 합니다.

Q. 펜싱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열린 특별활동 중 '펜싱'이 있어 그때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당시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었지만, 감독님 제안으로 전국 대회까지 나가게 되면서 점차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하는 과정에서 펜싱이라는 종목에 진지하게 임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 다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Q.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합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가요?

금해 마지막 대회인 대학 연맹 단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결승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전에 치른 대회에서 3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회마다 더욱 성장해 한 단계씩 올라가고 싶습니다.

Q.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상황과 극복한 나만의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고등학교 때 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계속 성적이 부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속상했지만, 운동과 체력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하면서 부담감을 잊는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꼭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발렌티노 베잘리'라는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나이는 48세인데요, 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정도로 여자 펜싱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금메달을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 선수의 꾸준함과 철저함을 닮고 싶어 국제 대회가 있으면 방송을 항상 꼬박꼬박 챙겨보고 따라 하면서 연습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펜싱부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저희 팀을 전국 1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학과 19학번 김정인

Q.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산업학과에 재학 중이고 펜싱부 소속 김정인입니다!

Q. 펜싱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 시작했나요?

저는 원래 태권도 선수가 꿈이었을 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이 펜싱과 적성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겠냐며 추천해주셨고, 그것을 계기로 펜싱이라는 종목을 접하면서 엄청난 흥미를 느낀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혹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합이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올 연말에 대학 연맹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출전해 경기하는 것이어서 기본기 중심으로 연습을 진행하면서 전 시합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Q. 운동하며 맞닥뜨린 힘들었던 상황과 그 상황을 극복한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대학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진한 경기 성적, 팀 주장이라는 직책에서 오는 부담감으로 인해 항상 긴장감을 놓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속 시원하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고등학교를 마무리한 기억뿐인데요. 또한, 하루에 행하는 운동량이 적게는 7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씩, 하루의 절반을 운동하는 시간으로 사용하면서 교복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채 졸업한 것이 너무나 아쉽고 힘들었습니다.

Q. '이 실력이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롤모델이 있나요?

저의 롤모델은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슬기 선수입니다. 제가 펜싱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저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던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양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항상 그 노력에 좋은 결과가 따라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저의 멋있는 선배이자 선수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열심히 노력하면서 두 가지 모두 좋은 성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무예경호학과 20학번 김주은

Q. 성함과 간단한 자기소개, 말씀해주세요!

반가워요! 저는 무예경호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펜싱부 소속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Q. 펜싱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뛰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점심시간에 항상 남자인 친구들과 축구를 즐겨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축구를 하는 도중에 해원중학교 펜싱부 감독님께서 펜싱을 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때마침 올림픽에서 진행하는 펜싱 경기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반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합과 목표가 있으신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합은 12월 대학연맹 시합입니다. 이번 시합을 계기로 조금 더 기본기를 중심으로 연습하면서 3등 이상으로 저의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Q. 운동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처음 해보는 기술을 익히거나 타이밍을 찾는 훈련을 종종 진행하곤 합니다. 그때 실력이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답답한 마음에 저 자신에게 화나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스스로와 싸우는 그 길고 괴로운 시간이 가장 힘들답니다.

Q. '꼭 이렇게 되고야 말겠어!' 하는 롤모델이 있나요?

호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예인' 언니입니다. 항상 저의 든든한 선배 역할을 해주고 안되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기보다 잘한다고 들려오는 선수나 체구가 자신보다 좋은 선수와 경기하더라도, 겁먹지 않고 자신 있게 시합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꼭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의 하나뿐인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Q. 단단히 세워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시합들이 미뤄지면서 큰 공백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따라서 펜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체력과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지며 운동할 계획입니다.







레저스포츠학과 17학번 김민우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줄, 부탁드립니다!

저는 레저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씨름부 소속 김민우입니다.

Q. 씨름을 언제, 어떤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되었나요?

기억이 희미한 어릴 적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체격이 크고 힘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특성을 알아보신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저의 적성과 잘 맞아 참 재미있는 스포츠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씨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합과 목표가 무엇인가요?

현재 '구례 대학 장사씨름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단체전으로 입상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Q. 운동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정말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겨울철을 보내는 것이 참 힘든데요, 겨울 깜깜한 새벽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을 맞으며 운동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Q. 혹시 나만의 워너비인 롤모델이 있을까요?

롤모델처럼 남을 모범으로 삼고 본받는 것보다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개성을 가꾸고 다듬어 보여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롤모델은 없습니다.

Q.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계획한 나만의 계단, 알려주세요!

저의 목표는 '2급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전문·생활·건강·장애인·유소년·노인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어떤 자격을 취득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 체육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종교문화학과 20학번 김선우

Q. 만나서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교문화학과의 풋풋한 새내기이자 씨름부 소속 김선우입니다.

Q. 지금의 김선우 선수가 되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첫걸음은 어떻게 딛게 되었나요?

처음 접한 씨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었어요. 씨름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스포츠라고 느껴져서 시작했었는데,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식으로 하고 있네요.

Q. 준비 중인 시합과 목표가 있나요?

준비 중인 시합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앞으로 있을 모든 시합에서 '개인전 1승'을 할 거예요!

Q. 운동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대회에 출전해 경기를 치르는 도중 제가 생각하는 기술이 정확히 구현되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약간의 자괴감이 느껴져 심리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씨름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도, 더욱 열심히 연습해서 꼭 성취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편입니다.

Q. 씨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혹시 그분이 롤모델인가요?

네, 맞아요. 강호동 선배님은 천하장사 등극 당시 최연소 천하장사, 최단기간 5회 천하장사, 당시 현역 승률 1위 기록 등을 보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시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해주시죠! 저도 선배님처럼 씨름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Q.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 세운 계획이 있을까요?

거창해 보이는 계획보다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지금 저의 계획은 꽤 간단해요. 바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앞으로의 선수 생활을 지속하면서 계속 지켜야 할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통상학과 18학번 박재선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제통상학과 18학번, 중원대학교 씨름부 박재선입니다.

Q. 씨름이라는 종목을 접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언제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었나요?

벌써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인데요, 저의 씨름 역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육 과목을 담당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남다른 저의 운동 실력과 체격을 알아보신 거겠죠?

Q. 그렇다면 현재 준비 중인 시합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내년 전국체전을 다음 시합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 목표는 '3등'인데요, 꼭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훈련 모두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참여할 예정입니다!

Q. 정말 건장하고 튼튼한 체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은데요, 그 몸을 만들고 씨름 선수로 활동하면서 힘든 점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가 언제였나요?

대회를 더욱 탄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시합에서 제가 노력해 쌓아 올린 실력을 모두 다 발휘하지 못했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많은 선수처럼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든 게 선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Q. 혹시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영암군 민속 씨름단 소속의 '장성우' 선수입니다. 장성우 선수는 1997년생으로, 2019년부터 영암군 민속 씨름단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데요. 설날 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를 따내고 위더스제약 씨름 대축제에서 천하장사 타이틀을 거머쥔 선수입니다.

Q. 더욱 발전하는 나를 위한 계획, 혹시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동계훈련에 모두 빠지지 않고 제가 원하는 성적과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종교문화학과 19학번 윤성민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교문화학과 19학번에 재학 중인 중원대학교 씨름부 소속 윤성민입니다!

Q. 씨름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지금 제가 씨름이라는 스포츠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몸으로 하는 스포츠가 좋아서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씨름이라는 종목을 접했을 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접해본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Q. 씨름부 주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주장님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합과 해내고 싶은 목표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달 말인 11월 28일에 시합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입니다.

Q. 격투기의 일종인 씨름은 특히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지속하면서 힘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훈련만 잘 넘기면', '이번 기술만 잘 해내면'처럼 항상 제 앞의 주어진 상황에서 한계를 경험하며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저절로 따라올 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다독이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Q. 혹시 동경하는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롤모델은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날이 찾아온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Q.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중원대학교 씨름부는 이광석 감독님의 지도하에 모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제가 존경하는 이광석 감독님의 지도를 잘 따르면서 한층 더 성장해가고 싶습니다.

제24호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Jungwon's GOT TALENT

'재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일컬어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으신가요? 우리 중원대학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중원대학교의 재능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영민 기자 redcamplsa@naver.com

중원대학교 운동종결자 방하민학생







본인이 재능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재능있는 분야는 운동입니다. 다섯 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운동과 친해졌어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푸쉬업, 딥스, 철봉운동 등 맨몸운동을 시작하여 3년간 꾸준히 진행하다 수능을 친 후부터는 지속해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아왔어요. 열심히 몸을 가꾸던 와중 주변 지인들이 다양한 대회 출전을 권했었어요. 그리하여 이번 연도 7월에 피트니스 스타 대회에 나가 머슬 부문 루키 3위, 피지크부문 루키2위를 수상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식단과 운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단은 탄수화물 200G, 닭가슴살 한쪽, 호두 7알, 다양한 채소 종류를 하루에 6끼씩 챙겨 먹으며 운동 끝난 후에는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합니다. 기숙사 생활 중에는 식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석밥과 닭가슴살을 항상 대량으로 구비해서 먹고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대회 준비 기간 때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동을 했으며 대회가 없을 때는 하루에 두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운동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웨이트 운동이 좋은 이유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몸을 만든다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성실함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쉽게 오지 않지만 이러한 꾸준함으로 몸을 만들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희열감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매력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올해 말에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군 생활할 동안 더욱 운동에 매진하여 몸을 가꾸고 제대 후에 다양한 대회에 나가 수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가장 희망하는 대회는 나바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 1등 상을 받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라스베이거스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도 출전하고 싶습니다.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변다원학생



본인이 재능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봉사활동'이에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대학 졸업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때 '도움이 필요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최대한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어요. 그날을 시작으로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봉사를 하면서 얻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단언컨대, 자원봉사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내면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난치병 환아 소원성취 전문 봉사를 진행했을 때, 제가 담당했던 아동은 개두술(머리뼈를 절개하고 뇌를 드러내서 하는 수술)이라는 큰 수술을 3번이나 견뎌낸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항암치료로 인해 삭발하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있다는 아이가 '머리카락이 갓 태어났을 때처럼 엄청 얇다'라고 말하며 얼굴에 미소를 짓는데, 무척 아프고 무서웠을 수술을 버텨내고도 어쩜 저렇게 티 없이 순수한 웃음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참 생각하게 하는 미소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아이가 정말 너무도 크고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저에게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아이처럼 견고하고 단단하게 넘어가리란 것을 다짐할 수 있었죠.

자원봉사 활동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며 주위 사람들은 '힘들지 않냐'등과 같은 질문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저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뿐이랍니다. 그 이유는 제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주말의 단잠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으로 향하던 날에는 책임감과 성실함을, 인도 아난타푸르의 그늘 하나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벽화를 칠하던 날에는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배웠어요. 자원봉사는 정말 소중하고 진귀한 가치와 경험을 선물해주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사람에게 한 번쯤 꼭 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촬영으로 사업까지 하는 김현우 학생



본인이 재능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시작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영상 및 사진 촬영에 재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강해서 처음 보는 기계장치를 보면 안 뜯어보고는 못 배길 정도였어요. 일단 뜯고 내용구성을 보고는 원리를 파악하는데, 재미를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덕분에 드론이라는 멀티콥터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드론을 만지다 보니 드론으로 공중촬영도 해보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촬영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현재는 주중에는 중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웨딩 영상 촬영을 하고 있으며 촬영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식으로 촬영에 관련된 활동을 하나요?

평소에 시간이 날 때 저는 영상 촬영을 합니다. 모델을 섭외하거나 교통비와 밥값 정도 받아서 촬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의 주력 사업은 웨딩 영상 촬영입니다. 하지만 향후 웨딩뿐만이 아니라 상업광고 촬영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준비를 위해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며 드론촬영, 수중촬영 등 다양한 촬영기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더욱 확장해서 직원을 두고 싶고, 철저한 준비를 해둬서 직원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가이드북을 탄탄히 만들어 둬 사업 처를 만들어 두고, 상업광고 영상 분야도 키워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촬영 분야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나요?

저는 초, 중, 고등학교 정말 다양한 카메라와 드론 기타 영상 장비를 다뤘으며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드론 동아리도 만들어서 운영하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촬영을 하러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서 웨딩 시장 수요도 조사, 가격조사 등 정말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웨딩 촬영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남들이 놀 때 저는 일을 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사업 준비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돌이켜 보면 제가 발전하는데 자양분이 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상점 얻고! 벌점 조심하자!



우리 학교는 기숙형 학교로써 학생들 대부분이 생활관 즉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관 같은 경우는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규칙을 위하여 우리는 상, 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JR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 벌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현복 기자 ne3h3b@naver.com

우리 학교는 기숙사비 50% 장학금을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직전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2.75점 이상과 누적 벌점 15점 이하일 경우에 기숙사비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 20점 이상이 생기면 다음 학기 입사가 불가능 해집니다.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해야하는 생활관인데 이정도의 벌점이 모일 정도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니 퇴사 조치는 당연한 듯 합니다. 이렇게 벌점이 생겼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상점이 있으니까요. 그럼 상점과 벌점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 공동	10	화재 진압 및 신고 등 사생 위험활동 보호	
	4	응급환자 간병 봉사	필수 최소 인원
	2	화재대비 훈련 등 법정 교육, 훈련 참여	
		생활관이 인정하는 주요 행사 참여 (선거 등)	
	1~3	기타 인정되는 참여 및 기여활동	학과행사 1~2점 프로그램 1~3점
공동생활	4	규정 위반, 사고 예방 신고 (별도 공지 기간 중)	실내 흡연 등
		생활관 운영에 현실적 발전안건을 제시하여 생활관장이 채택한 경우	별도 양식 없음
		한운위, 총장, 생활관 근로(지키미, 도우미) 우수 근무자	기간 중 무벌점, 참석율 90% 이상 조건 대상 중 선발
환경 · 위생	1	클린데이 우수 호실, 청결 우수 층	기간은 별도로 정함
	1~3	벌점상쇄 청소 1시간	난이도별 차등 가능

생활관 도우미

우리 생활관은 상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층장 또는 생활관 도우미의 경우는 근로로 인정을 해주어 학기마다 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점과 용돈을 함께 얻고 싶다면 생활관 근로는 학기마다 선정을 하니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 바랍니다!

클린데이

클린데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한번씩 시행하고 있으니 클린데이에 맞춰서 룸메이트와 함께 대청소는 어떨까요?

벌점 상쇄 청소

많은 학생들이 벌점을 상쇄할 상점을 얻기 위해 생활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생활관 행정실에서 수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상쇄할 벌점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상점을 얻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각종 행사 참여

우리 학교 생활관은 수시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통해 쉽게 상점을 얻을 기회를 잡아보세요. 또한 매년 진행하는 학생회 선거에 참여 역시 상점을 주고 있으니 우리 학교의 발전과 스스로를 위해 투표도 하고, 더불어 상점도 얻어봅시다.

안전 · 공동	영구 퇴사	절도 · 폭행 · 도박 · 방화(실화) · 성범죄 등 현행범 위반	
		기물 고의 파손, 타인 우편물 무단개봉/수령 (절도 해당)	
		이성 생활관 무단출입, 집단 따돌림 (온라인 포함)	
	즉시 퇴사	입사 후 전염성 질환 감염자,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관장, 사감 정당한 지시 불이행, 불손한 행위 · 폭언	대면, 유 · 무선 포함
	−20	외부인 무단출입(사용)/방조, 출입 권한 부정 사용	
		월담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관 출입	주간, 야간 동일
	−15	호실 내 음주, 흡연, 만취 귀사	2회:−30, 3회:영구퇴사, 학기단위
	−10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1시 이후 생활관 출입	음주 후 귀사 등 일반사유 원칙적 출입 불가 (응급상황 제외)
		타인 소유품 무단사용, 호실 시설물 무단이동	
	−5	소방대피로 개인 짐 무단적재, 허용 외 전자기기 반입	복도, 계단 등
규칙 위반	−10	사설 공유기 사용, 허위진술(정보기재), 대리(허위) 점호	
	−3	무단외박, 점호불참 (1시 이전 늦은 귀사 포함)	
	−2	12시 이후 미소등, 소란행위 일체	
		생활관 근로 업무 태만	
환경 · 위생	−5	쓰레기 무단투기, 침을 뱉거나 꽁초를 바닥에 투기	
	−2	호실 청결 불량	
		시설물 고의적 과실에 의한 고장 (쓰레기에 의한 엘레베이터 고장, 물티슈 사용으로 인한 변기 막힘 등)	
입주 의무	한학기 퇴사 (즉시퇴사)	무단 입 · 퇴사, 서류조작, 입사서류 미제출(입사 10일 이내)	
	−5	호실 시설물 기간 내 미확인 등 입 · 퇴사절차 미준수	
징계	(−10)~ (−200)	관생 수칙 제13조 3항에 의한 징계 봉사 처분 1주(5시간) ~ 20주(100시간)	사안의 경중에 따른 차등 기존벌점에 우선하여 상쇄

즉시 퇴사

벌점 부과 항목을 보시면 벌점 조치가 아닌 즉시 퇴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경우는 생활관 벌점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그 중 영구 퇴사의 경우는 공공기물 파손, 절도 및 도박, 실화 또는 방화, 폭행 등 생활관은 물론 실제 생활에서도 하면 안되는 항목들이 대다수 입니다. 해당 항목은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 학기까지 입사 불가하는 항목 역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하는 항목이니 생활관 거주 중에 절대 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단 외박

많은 학생이 많이 받는 벌점 중에 하나인 무단 외박 및 점호 불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무단 외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깜빡하고 외박 신청을 하지 못한 채로 집에 갔다가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까먹고 있었다고 생활관에 이야기를 해도 벌점을 무를 수 없기 때문에 집에 가거나 약속이 있어 생활관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꼭 외박 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흡연 및 소란 행위

생활관 내 흡연 및 소란 행위 역시 학생들이 벌점을 받는 이유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항목입니다. 우리 생활관은 각 건물마다 지정된 흡연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로 절대 방에서 흡연을 하면 안됩니다. 소란 행위 역시 같은 룸메이트는 물론 다른 호실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 등에는 생활관에서 너무 시끄럽지 않게 생활하는 매너를 지켜주세요!

사용 금지 물품

우리 생활관에서는 사고 및 전력 등의 문제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습니다. 생활관 내에서 취사 행위는 절대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전기밥솥, 라면포트, 커피포트, 가스버너 등은 반입 금지입니다. 건물마다 전자레인지가 배치가 되어 있어 필요 시 공용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주류, 흉기, 트럼프 카드, 화투 또한 반입금지 항목이고 냉장고의 경우는 46L 이하까지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24호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우리 학교는 이렇습니다

중원대학교의 자랑



세계와 연결된 작은 지구촌 우리 중원대학교는 학우 여러분과 교직원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중원대의 자랑을 직접 인터뷰를 통해 담아 보았습니다. 우리 학우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중원대의 자랑을 한번 보실까요?

최지원 기자 jw010426@naver.com

임상병리학과 20학번 김민주



Q.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중원대하면 시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가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학생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정말 좋습니다.

임상병리학과 18학번 김선영



Q. 우리 학교 자랑 부탁드려요.

운동장이 넓고 풍경 조성이 잘 되어있어 낮이나 밤이나 계속 산책이 하고 싶어집니다. 공부할 때나 마음이 답답할 때 걷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기분전환에 좋고 특히 가로등이 밝아 밤 산책을 할 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 18학번 배지후



Q. 우리 학교의 자랑 부탁드립니다.

중원대학교는 주변에 산과 풀들이 많아서 공기가 상쾌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지치면 산책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학교 앞이 탁 트여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경찰행정학과 18학번 김수지



Q. 우리 학교만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숙사 시설이 타 대학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숙사 각 층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학교와 기숙사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기숙사 내부 무인 편의점이 있어 늦은 밤에도 물건을 구입 할수 있는 점이 중원대학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병리학과 20학번 주효인



Q. 우리 학교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대의 가장 큰 자랑은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밥 먹으러 학교 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밥은 학우들에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학식뿐 아니라 카페테리아와 한국관 등 다양하게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서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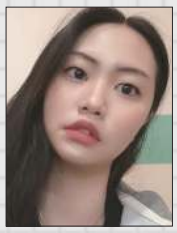
간호학과 20학번 박미진



Q. '내가 중원대학교에 입학하기 잘했다!' 라고 느끼시는 순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공기가 맑아서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공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나의 잠재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점이 중원대학교에 입학하기 잘했다!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학과 20학번 이세인



Q. 학교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학교의 외관이 타 대학과 견주어 보았을 때 정말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교의 경관이 정말 좋고 자연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운동장과 골프장 그리고 산책로가 잘 되어있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약공학과 20학번 이가희



Q. 이것만큼은 중원대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점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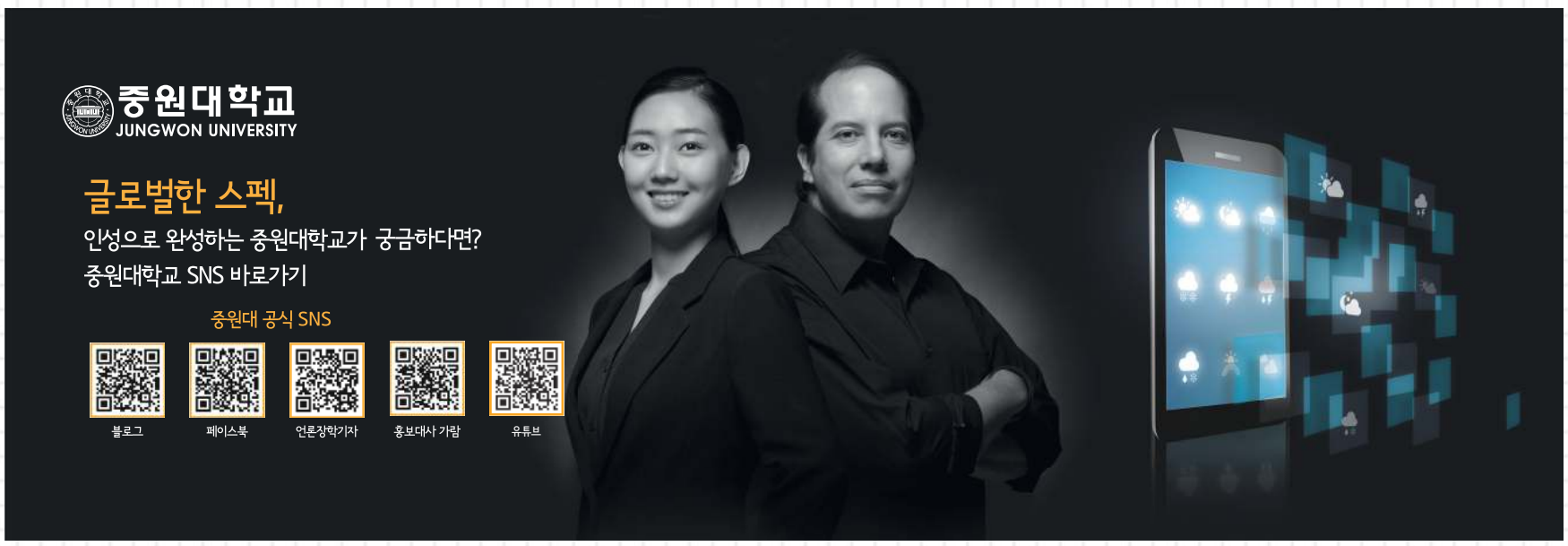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이 중원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교과목 외에도 원하는 부분을 더 공부하고 배울 수 있어 폭넓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공학과 20학번 김평화



Q.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교 캠퍼스가 넓고 산책로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밤 산책을 친구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중원대학교에 와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입니다.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서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밤 산책을 할 때 별이 보여서 정말 좋습니다.





책을 소개하고 추천합니다

중원인들의 인생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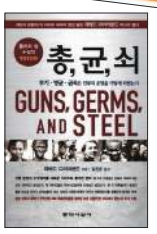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및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 (르네 데카르트) 이 명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독서는 우리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중원인 여러분은 무슨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어보셨나요? 우리 학우들에게 추천하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지원 기자 jw010426@naver.com



간호학과
19학번 김구민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19학번이며, 간호학과 독서동아리 다독다독 회장을 맡고 있는 김구민입니다!

Q. 독서동아리 '다독다독'에 들어가시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1학년 초에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보던 중 '다독다독'을 봤을 때 뭔가 어색한 신입생인 저를 다독여줄 거 같고, 간호사에 관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Q. 나만의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책을 고를 때 제목이 마음에 와 닿는 책을 고릅니다. 사람의 첫인상 같은 부분이 책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면 내용이 궁금해 계속 읽게 되어서 이렇게 고르고 있습니다.

Q. 나만의 인생 책 TOP3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첫 번째는 제게 간호사의 꿈을 갖게 해준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두 번째는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 세 번째는 '총. 균. 쇠'입니다. 세 가지 책 전부 동아리 활동을 하며 읽었을 정도로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동아리입니다!

Q.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학우분들께 추천하는 책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학우분들께 '사막을 달리는 간호사'를 추천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좋은 직장에 취업했지만, 사표를 던지고 자기의 하고 싶던 목표를 찾아 사막으로 떠난 내용입니다. 책을 읽기 전 저에게 꿈이란 그냥 인생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의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잊고 살았던 진짜 꿈을 알았고,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내 진짜 꿈은 뭐였지?'라는 생각을 하며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기에 추천합니다!



교양학부
이근우 교수님





Q. 안녕하세요.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양학부 이근우 교수입니다.

Q. 교수님께서는 독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독서란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건방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마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이고 마음을 낮추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 없이는 앎도 없고 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독서의 단단한 힘은 바로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교수님이 읽으셨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으셨던 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 읽는 보람은 교양으로 나타난다는 2013년 김영사에서 출간한 정민 저 〈오직 독서뿐〉입니다.

Q. 교수님만의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관심 있는 것부터 책을 읽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부터 그려 보는 것이 미술 수업의 시작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삶의 시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책을 고른다는 것은 그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책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 통치자의 비밀은 바로 글쓰기였다. 안대희 저, 〈정조 치세어록〉, 푸르메, 2012.
2. 동양의 다빈치 다산 정약용. 실학박물관 편저, 〈다산 조선의 새 길을 열다〉, 2016.
3. 오래되고 낡은 물건이지만 사람의 온기와 물품 자체의 물성이 느껴지는 박현택 저, 〈오래된 디자인〉, 컬처그라퍼, 2013.



간호학과
20학번 박은빈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20학번 박은빈입니다.

Q. 나에게 독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독서란 지식을 넘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더불어 저자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얻은 것이 삶의 어떠한 순간마다 방향표 혹은 피해야 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Q. 나만의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요즘은 표지로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참 쉬워서 딱히 나에게 맞는 책을 골라야겠다! 라는 포부를 가지고 고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서점 혹은 도서관에 들렀을 때 제 감정 상태와 맞아 떨어지는 색깔을 사용한 표지가 있거나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고릅니다.

Q. 나만의 인생 책 TOP3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1.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 박경철
2. 파우스트 - 괴테
3. 고백 - 미나토 가나에

Q. 마지막으로 학우분들께 추천하는 책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밀실 살인 게임 2.0'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락적인 느낌이 강한 추리소설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앨리스 죽이기'도 재밌습니다. 살짝 잔인해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이것도 추리소설로 이런 분야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겁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배움 혹은 잔잔한 것을 읽고 싶다 하시면 위에 있는 TOP3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비대면 수업 속 모습은?



2020년도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국의 모든 대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처음 해보는 비대면 수업에 좋은 점도 있으면서 어렵고 불편했던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대학교의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직 위험한 상황이어서 비대면 수업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기한 연장으로 길어지는 비대면 수업 속에서 중원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러 가실까요?

최민경 기자 peyy0520@naver.com



간호학과
20학번 황아현

Q.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약 한 달간 전공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했는데, 수업에 대한 집중도 높아지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복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은 대부분 그러다시피 집에서 진행되어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나태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수업의 품질도 저하되고 소통에 어려움도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 좋겠습니다.

Q. 자기가 생각하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면 수업이라면 하지 못했을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취미 생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각자의 공부 방식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비대면 수업 속 자신만의 집중력을 높이는 꿀팁이 있다면?

대면 수업과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업 한 시간 전 씻고,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앉으면 그에 따라 공부할 자세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을 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필수로 캠을 켜지 않아도 되는 수업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수업에도 캠을 켜고 참여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는 것이 의식되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작업치료학과
20학번 변유진

Q.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습이 필요한 학과들은 수업을 듣는 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 때 서버의 문제가 생길 경우엔 화면 끊김 현상과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가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대면 수업보다는 생생함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지는 경우도 생겨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자기가 생각하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비대면수업의 경우에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 언제든지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과 녹화본 강의인 경우에는 놓친 부분도 다시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 학습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비대면 수업 속 자신만의 집중력을 높이는 꿀팁이 있다면?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수업을 들으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수업을 들을 때엔 스마트기기를 멀리 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 효율성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상병리학과
20학번 장은지

Q.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새내기인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온라인으로 교수님과 동기들과의 처음 만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버 연결이 안 돼서 의도치 않게 수업에 늦거나 중간에 나가는 경우와 현장에서 듣는 생생한 느낌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점과 녹화 강의는 고등학교 때 인터넷 강의를 들은 것처럼 들으면서 복습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은 양면성을 지닌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Q. 자기가 생각하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대면 수업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대면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강의실에서 들어야 하지만 비대면 수업은 상대적으로 집에서 편하게 들어도 되고 만약 사정이 있으면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대면 수업은 그때 수업에 딱 집중해서 들어야 놓치면 끝이지만 비대면 수업 때 녹화 강의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Q. 비대면 수업 속 자신만의 집중력을 높이는 꿀팁이 있다면?

공부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에서 수업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 위험한 상태이지만 집에서만 수업을 듣게 되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기에 조금씩 나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꼭 밖이 아니라도 주변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곳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중원대학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기부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 참여 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국민 615801-04-211393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1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1 (중원대학교 홍보팀) / 팩스 (043)830-8079

16학번이 들려주는 라떼는 말이야



우리 학교는 2009년에 개교하여 이제 11년이 지난 학교입니다. 그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아직은 발전단계에 있는 학교입니다. 현재도 우리학교는 계속하여 변화를 하고 있는데 신입생분들이나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가 무엇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좋아진건지 피부로 와 닿지 않으실 텐데요. 저희가 고학번 학생의 인터뷰를 통하여 예전의 중원대와 비교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이현복 기자 ne3h3b@naver.com

자기소개와 오늘 들려줄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재료공학과 재학중인 신동현이라고 합니다. 제 학번은 16학번이기도 하고 화석 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이야기는 때는 바야흐로 제가 신입생이던 시절 2016년... 정말 지금에 비하면 학교가 꽤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16학번 학생분들 대표로 예전의 중원대를 회상하고 지금 학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후배님들께 학교 어디가 바뀌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 드릴게요!



어디가 바뀌었나요?



저희가 신입생으로 왔을 때는 우선 올라오는 길목에 회전 교차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야 할할 때 캠퍼스를 크게 돌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사고도 많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또 운동장 쪽을 보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았는데 중앙운동장에 펜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 손상이 갈까 봐 운동하는 학생들도 불안했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에 주차를 한 사람들 역시 불안해 했죠. 근데 보호 펜스가 생겨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피플카! 이거는 정말 좋아요. 2016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학교도 이런게 생겼구나 하고 놀란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저희 신입생 시절의 학식은 한끼에 2,500원이였고 기숙사 신청하면서 식권을 신청하면 80장 정도 되는 종이 식권을 나눠줬어요. 마치 저희 부모님 세대가 쓰시던 버스표처럼요^^ 그때의 학식은 정말 살려고 먹는 수준이였어요. 진짜 맛이 너무 없었어요. 먹게 되더라도 다들 남기기 일쑤였죠.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만 되면 남자 기숙사 앞에 있던 컵밥 가게에 줄이 정말 길었어요. 한번 기다리면 2~30분은 기다려야 살 수 있던 것 같아요. 지금 학식은 3,500원으로 천원이 올랐는데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테리아도 많이 바뀌었어요. 메뉴가 다양해지고 저희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보다 많아졌죠. 그리고 원래는 식권으로 카페테리아나 한국관 이용이 불가 했는데 지금은 '달아요' 어플로 주말에 사용이 가능해서 너무 좋아졌어요! 아 맞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작년까지 기숙사 앞에 제2 카페테리아라고 불리우던 가게들이 카페를 제외하고 기존 카페테리아와 통합되면서 사라진 메뉴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기숙사는 정말 할 말 많죠. 저희 신입생 때는 모두 단일 침대 사용하면서 6인실을 썼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었죠. 100%입사 가능이였어요. 그런데 다음 학기부터였나 단일 침대 6개 중 2개가 2층침대로 바뀌고 방 크기는 동일한데 6인실이 8인실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정말 좁게 느껴지더라구요. 같은 과 친구들이랑 방을 쓰고 북적북적해서 재미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6명이서 살던 곳에서 8명이 살게 되니까 많이 좁았어요.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로 방마다 수용인원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때는 학과별로 층이 배정되어 있어서 기숙사 신청을 할 때 좀더 좋은 방을 선택하려고 하면 선배들 눈치를 보게 되었고, 저희가 배정 받은 층이 고층으로 가게 되면 불만이 많아졌죠. 지금처럼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게 너무 공평하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택배를 찾으러 갈 때 편한 시간에 택배 보관실로 가서 찾으시죠? 저희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택배 모두 한 곳에서만 수령이 가능했고 택배 보관실 문이 열리는 시간이 하루 한 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택배 찾을 때도 줄을 길게 서 가면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 신입생 때는 전자레인지도 없어서 데워야 할 음식이 있으면 매점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마트24! 삶의 질이 달라진 기분이에요. 기숙사 문이 닫히면 배고파도 먹을거리 살만한 곳이 없어서 너무 불편했는데 기숙사 내에 24시 편의점이 들어오다니 너무 좋아졌어요. 저녁마다 오늘은 뭐 먹을까 룸메이트랑 얘기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는데 헬스장도 한번 리모델링이 되면서 크기도 넓어지고 기구도 많아지면서 이제는 동네 헬스장보다 학교 헬스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학교 소유 승마장도 생겨서 학생들이 말도 타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리고 괴산 읍내도 많이 변했죠. 프랜차이즈라고는 롯데리아와 1층짜리 이디야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프랜차이즈도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술집과 카페도 많이 늘어났고 코인노래방도 생겼죠. 진짜 할 거 없던 2016년보다는 많이 즐거워졌어요.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그동안 이렇게 학교가 많이 발전하게 된 이유로는 지난 학생회분들과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꾸준히 힘을 써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전과 비해서 많이 편해지고 즐거워진 학교 생활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후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하고, OT, M.T, 축제 등 많은 행사를 못 즐겨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 많은 관심이 생기시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생기게 될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직접 개선하려 노력하시면 저희가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더 좋은 학교를 다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후배님들의 남은 학교생활 응원할게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2020년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모든 것이 달라진 만큼 우리의 수업 역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비대면 강의 등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일상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최지원 기자 jw010426@naver.com

Q. 코로나19로 어떤 일상이 바뀌었나요?



간호학과 20학번 공민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 밖에 안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집을 좋아하는 일명 집순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으며 밖에서 노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안전하게 노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다시 보는 활동이 더욱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Q. 비대면 강의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작업치료학과 18학번 이지은

비대면 강의를 함에도 점점 강의의 수준이 올라가는 점이 좋았고 무엇보다 특히 녹화강의 같은 경우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있었는데 비대면 강의 덕분에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Q. 1학기에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어떠셨나요?



스포츠지도학과 20학번 김예솔

과 특성상 실기수업이 대부분이었는데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온라인 강의 영상이 끊기거나 교수님 목소리가 작을 때가 있어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점점 강의의 질과 수업 내용이 좋아지면서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였지만 노력하면서 들으려고 하다보니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다.

Q.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간호학과 20학번 박지예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교수님과 학우분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강의의 질이 떨어져 학우분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모든 걸 진행하다 보니 시험의 공정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 아쉬웠습니다.

Q.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진행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윤지현

제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시험 변별력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공부하여 정직하게 봤지만, 어서 다음 학기에는 대면 수업으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해 대학 생활에서 아쉬운 부분은 어떤 점이 있으셨나요?



항공기계공학과 20학번 이재훈

새내기라는 로망을 품고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첫 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어 친구들과 캠퍼스 생활을 못 누린 것이 정말 아쉬운 부분으로 남겠지만 비대면 강의도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Q. 비대면 강의를 할 때 수업 건의사항 들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간호학과 20학번 강은지

우선 교수님과의 연락이 대부분 잘 이뤄져서 궁금한 점들을 직접 쪽지를 보내 해결을 대부분 하였고, 학생회에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반대표에게 직접 연락을 통해서 비대면 강의의 어려운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잘 해결했습니다.

Q. 코로나로 가장 많이 바뀐 학우님의 일상은 무엇인가요?



의생명과학과 20학번 박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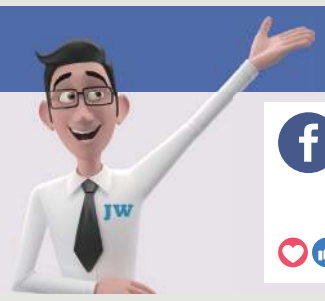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 없이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접촉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집 앞의 편의점을 가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 없이는 아무 곳도 방문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Q.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작업치료학과 18학번 이지수

저는 밖에서 나가서 좋아하는 다양한 것들을 즐기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지 못한 것과 사람들과 만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어서 힘들었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숨이 차고 습기가 차서 매우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중원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ungwonuniv/

중원언론장학기자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Jwujr

중원대학교

Jungwonuiv
Monday at 11:00 AM

중원대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고 학교 소식을 받아봐!

Lorem ipsum and 291 others

55 comments

새내기 병아리들의 기숙사 원픽은 나야 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2020년도에 잠깐이라도 20학번 학생들이 철저한 방역과 관리 속에서 학교 생활과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새롭고 낯설었을 생활 속에서 특히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처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한 것이 뜻깊었던 부분 중 하나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20학번 새내기들이 기숙사에 대한 첫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0학번 새내기 병아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러 가실까요?

최민경 기자 peyy0520@naver.com

간호학과 20학번 정건우



Q. 짧지만 학교 기숙사 생활이 어떠했는지?

학교 기숙사 생활이 짧은 것이 되게 아쉬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실 입사 전에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처음 보는 룸메이트와 같은 과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게 되었으며 매일 같이 운동하고 공부하다 보니 편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재밌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였으며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 친구를 만난 이번 기숙사 생활은 시간이 짧은 것 빼고는 완벽했습니다.

Q. 이번에 생활하면서 놓고 와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물건이 있었는지?

이번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놓고 와서 아쉬운 물건으로는 안대가 있습니다. 평소에 주변이 조금이라도 밝으면 잠을 자지 못하여서 안대가 개인적으로 꼭 필요했는데 챙기지 못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자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부족했던 물건으로는 두루마리 휴지가 있습니다. 약 3주만 생활하기 때문에 1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 휴지 1개는 5일 만에 다 사라져 비싼 돈 주고 사게 되어 아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Q. 자신이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은?

제가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은 방향제입니다. 아무리 청소와 환기를 열심히 하여도 남자들끼리 사용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퀴퀴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책상에 디퓨저 같은 것을 올려두거나 주기적으로 뿌리는 방향제를 이용하여 방 안에 갇혀있는 퀴퀴한 냄새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20학번 장지연



Q. 짧지만 학교 기숙사 생활이 어떠했는지?

같은 과 동기들을 처음 만나고 친해질 수 있었던 자리라서 좋았습니다.

Q. 이번에 생활하면서 놓고 와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물건이 있었는지?

저는 냉장고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아쉬웠습니다. 물이나 음료수와 같이 페트병으로 되어있는 음료를 구매하였을 때 냉장고가 없으니 바로 미지근해져서 맛이 없어지고 미리 사둬서 시원하게 넣어놓지 못하는 점들이 아쉬웠습니다. 더불어 과일같은 것도 먹고 싶었지만, 냉장고가 없어 상할까 봐 먹지 못한 점들이 아쉬워서 냉장고를 가져오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Q. 자신이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은?

저는 담요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채광 일체형 방을 썼는데 룸메이트는 일찍 자는데 혼자 밤새워 공부하고 싶을 때 침대 사이에 걸어놓으면 자신의 책상에서 나오는 불이 안 보여서 룸메이트가 편하게 잘 수 있고 저도 룸메이트 신경 안 쓰고 공부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경찰행정학과 20학번 박서현



Q. 짧지만 학교 기숙사 생활이 어떠했는지?

기숙사가 대리석이라 너무 예쁘고 깔끔했고 한방에 2명이라서 넓게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자 기숙사처럼 중간에 벽이 쳐져 있어 개인공간을 구분해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두 시설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밤마다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잠을 제대로 못 잔 점이랑 방안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방안에서도 담배 냄새를 맡아 짜증났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Q. 이번에 생활하면서 놓고 와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물건이 있었는지?

저는 몇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미니냉장고, 미니공기청정기, 건조대, 카메라, 금고, 벽시계, 가운등이 있었습니다.

Q. 자신이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은?

제가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게 하는 안대랑 가운, 평소 맑은 공기를 맡게 해주는 미니공기청정기, 소중한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 등을 필수템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행정학과 20학번 권오윤



Q. 짧지만 학교 기숙사 생활이 어떠했는지?

처음 경험해보는 기숙사 생활이었기에 불편했던 점도 많았지만 같은 학과 친구들과 같이 밤낮으로 생활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에 생활하면서 놓고 와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물건이 있었는지?

수건을 조금 가져와서 빨래를 자주 했었고 많은 양의 빨래는 건조기에 건조해도 제대로 마르지 않아 건조대가 필요했지만 가져오지 않아서 새로 샀습니다. 기숙사에 가져올 수 있는 사이즈의 냉장고도 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자신이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은?

저는 노트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에서 심심할 때 게임을 하면서 시간 보내기에도 좋고 교양 수업이 비대면일 때 수업 들을 때 필요했고, 생각보다 과제가 많아서 노트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20학번 정어진



Q. 짧지만 학교 기숙사 생활이 어떠했는지?

처음에는 낯선 환경인지라 어색하고 좀 힘들기도 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2주간의 짧은 학교 기숙사 생활이 나름 재밌었습니다.

Q. 이번에 생활하면서 놓고 와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물건이 있었는지?

저는 박스 테이프라고 생각합니다. 퇴사하기 위해 집으로 택배를 보낼 때 박스 테이프가 없어서 고생을 한 기억이 있어 박스테이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Q. 자신이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은?

제가 추천하는 기숙사 필수템은 가습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기숙사에 난방을 켜놓는데 그 때문에 실내가 무척 건조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잠을 잘 때 건조해서 깰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내 습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가습기가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는 미래 경쟁력,

중원이 이끌어갑니다

충북지역 2년 연속 취업률 1위

최초 합격자 수업료 30% 장학금

생활관 관리비 4년간 반액 장학

생활관 전교생 입사 가능

(일반대학교, '19년 대학알리미 기준)



미래지향 정예교육의 특화된 학과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서비스학과
항공기계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사회문화대학
종교문화재학과 / 한국어교육문화학과 / 사회복지학과
경찰행정학과 / 연극영화학과 /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산업학과 / 무예경호학과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 / 작업치료학과 /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과 / 의료뷰티케어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
의생명과학과 / 의약바이오학과 / 식품공학과
의료공학과 / 컴퓨터공학과 / 전기전자공학과
소방방재학과 / 융합디자인학과 / 말산업학과

2021학년도 중원대학교 신입생 모집안내

정시(가/나군)원서 접수기간 : 2021. 1. 7.(목) ~ 11.(월)

입학문의 : 043) 830-8081~5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